

## 제 ① 교시

## 국 어

1.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추’를 강원, 경북, 충북에서는 ‘분추’라고 부르고 일부 경상, 전남에서는 ‘술’이라고 한다. 일부 충청에서는 ‘줄’이라고 부르며 경상, 전북, 충청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①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
- ②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
- ③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
- ④ 직업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

2. 다음 속담에서 강조하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①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②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아야 한다.
- ③ 상대방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 ④ 질문에 답할 때에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3.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이 엄마에게 업혔다.
- ②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 ③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④ 그가 친구에게 사실을 밝혔다.

4.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 표준 발음법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값을 깎지 마세요. → [갑쓸]
- ② 넋이 나간 표정이다. → [녁씨]
- ③ 답을 키운 적이 있다. → [다굴]
- ④ 앉아 있기가 힘들다. → [안자]

5. 다음 높임법이 나타난 문장이 아닌 것은?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다.
- ②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 ③ 자세한 내용은 아버지께 여쭙 보세요.
- ④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6~7]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건의문 쓰기
- 예상 독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 글의 초고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입니다.

우리 학교는 주변 상권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교 매점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비롯해 매점에서 식품을 사 ㉠ 먹을 학생들이 배탈 난 일이 있었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도 위장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한 가지 건의를 ㉢ 들어려고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 유해·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중·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매점에서 유해·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한다면,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김△△ 올림

6. 다음 중 (나)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 ② 예상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③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 ④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 표현이 잘못되었으므로 ‘먹은’으로 고친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드리려고’로 수정한다.
- ④ ㉣: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그래서’로 바꾼다.

8.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孔·공子·지·曾·중子·즈·드·려·닐·러·굴·으·샤·디·몸·이며  
얼·굴·이·며·며·리·털·이·며·슬·훈 ㉡ 父·부·母·모·씩·반·즈·온  
거·시·라·敢·감·히·헐·위·상·히·오·디아·니·홈·이·효·도·익  
비·르·소·미·오·몸·을·세·위·도·도·를·行·행·히·야 ㉢ 알·홈·을  
後·후·世·세·예·베·퍼·빠 ㉣ 父·부·母·모·를·현·더·케·홈·이  
:효·도·익·ㅁ·춤·이·니·라

-『소학언해』(1587)-

- ① ㉠: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 ② ㉡: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③ ㉢: 이어 적기로 표기되었다.
- ④ ㉣: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표기되었다.

[9~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 무지개인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9. ㉠~㉣ 중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의인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 상관을 활용하여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11. 다음을 참고할 때, 시인이 윗글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육사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발물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열일곱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 운동가였다.

- ①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자세
- ②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
- ③ 운명에 순응하며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
- ④ 극한의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항일 의지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1930년대의 어느 농촌, 스물여섯 살 '나'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데릴사위로 들어와 새경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한다. 하지만 장인은 성례를 계속 미루며,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기만 한다. 억울한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가서 의견을 묻기로 한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뿔 씨! 얼른 성례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 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sup>1)</sup>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컷배기 하나가 적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sup>2)</sup>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컷 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 뭇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피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뻔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sup>3)</sup>을(사경 받으러 (가)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펜스레 쥔 들쓰고 들어 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늙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인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 김유정, 「봄·봄」 -

- 1) 사경: 새경. 머슴이 주인에게서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 2) 귀정: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길로 돌아옴.
- 3) 정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12.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어리숙한 인물의 언행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농촌을 배경으로 설정해 당시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13. (가)에 나타난 구장의 설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잘못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징역 간다는 말로 ‘나’에게 겁을 주고 있다.
- ③ 결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성례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를 회유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무관심한 ‘구장’의 모습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 ‘구장’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나’는 장인의 말에 근거를 들어 대응하고 있다.
- ④ ㉣: ‘나’는 ‘뭇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초가집 몇 칸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송죽 울창한 곳에 풍월주인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은 가랑비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 냈는가.  
 조물주의 숨씨가 사물마다 신비롭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봄 흥취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이니 흥이야 다들쏘냐.

- 정극인, 「상춘곡」 -

15.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4음보의 율격이 주로 나타난다.
- ②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나눈다.
- ③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이 있다.
- ④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된다.

1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속적 공간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다.
- ② 옛사람의 풍류와 비교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큰 고을의 주인이 되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 ④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감상하며 흥취를 느끼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좌수(座首) 별감(別監) 녀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케<sup>1)</sup>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sup>2)</sup> 잃고 송편 들고, 탕건<sup>3)</sup> 잃고  
 (가) 용수<sup>4)</sup>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  
 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중략>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sup>5)</sup>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 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절인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 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李花  
 春風)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 1) 인케: 관아에서 쓰는 각종 도장을 넣어 두던 상자
- 2) 병부(兵符):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 3) 탕건: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 4) 용수: 좌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씌우는 둥근 통 같은 기구
- 5) 관장(官長): 관가의 장(長). 고을의 원을 높여 이르던 말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판소리로 공연되기도 하였다.
- ② 궁중에서 발생하여 민간으로 유입되었다.
- ③ 조선 시대 양반 계층에 한하여 향유되었다.
- ④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라 한자로 기록되었다.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단어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9.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춘향’은 ‘어사또’의 수청 제안을 거절했다.
- ② ‘어사또’는 지난밤에 옥 문간에서 ‘결인’을 만났다.
- ③ ‘춘향’은 내려오는 관장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④ ‘향단’은 ‘어사또’의 정체를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 (나)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 (다) 우선,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원에 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시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물리적·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공원을 ㉠ 찾는 사회적 약자는 처음 공원 설치 시 기대했던 인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 (라) 도시공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원 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쌈지 공원’<sup>1)</sup>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 이훈길, 『도시를 걷다』 -

1) 쌈지 공원: 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에 조성한 공원

20. (가)~(라)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도시공원의 정의와 기능
- ② (나): 사회적 약자가 선호하는 도시 시설
- ③ (다): 사회적 약자의 도시공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
- ④ (라): 바람직한 도시공원의 요건

21. 밑줄 친 부분이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국산품을 찾는 손님이 많다.
- ②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③ 떨어진 바늘을 찾는 일은 어렵다.
- ④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다.

22. 밑글을 고려하여 떠올린 ㉡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원 내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 ② 공원 내에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방향 유도 체계를 만든다.
- ③ 공원 내에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의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한다.
- ④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원을 배치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니체는 ‘망각은 새로운 것을 ㉠ 수용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고 말했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과거에 ㉡ 구속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레 잊혀야 할 일들이 도무지 잊히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나 뜻하지 않게 퍼진 사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 공개된 이용자 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검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털 사이트에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노출되길 원하지 않았던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올라간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 확실하게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단순한 개인 정보라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

㉤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알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잊힐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법적인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에 대해 꼭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윤용아, 「잊힐 권리와 알 권리」 -

23. 밑글을 읽은 후, 타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에 나타난 ‘잊힐 권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② 친구들과 함께 ‘잊힐 권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 ③ 전문가를 대상으로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 ④ 인터넷 게시판에서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을 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한다.

24. ㉥가 제시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알 권리’를 인정하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알 권리’를 인정하면 망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 비공개로 인해 공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 유출로 인한 고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5. ㉦~㉨를 고유어로 바꾸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이게                      ② ㉧: 엽매이지
- ③ ㉨: 드러나길                        ④ ㉩: 올바르게